

결론은 복음 (마태복음 24:1-14)

오늘 2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때 있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다. 그 마지막때, 그 때에도 결론은 복음이다라는 뜻이다. 오늘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해서 부작용이 나는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종말이 있다. 개인에게도 있고 시대에게도 있고 지구에도 종말이 있다. 그런데 이 종말을 막을수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 하나님은 복음을 그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다. 개인에게 마지막이 다가 온다면 복음 외에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시대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보다 더 크다. 그리고 지구에도 종말이 오면 그것은 시대 종말보다 더 크다. 지구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원 받으려면 복음 뿐이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지구에 답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에 답이 있으면 왜 멸망하도록 그냥 두겠는가?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죽는데 죽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다. 성경은 이 저주가 원죄 때문이고 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언젠가는 개인에게 종말이 온다. 시대에도 오고, 지구에도 온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답에 대하여 답을 내리고 발견하고 언약되는 시간 되기 바란다. 먼저 볼 말씀의 결론은 복음이라는 것이다. 일단 본문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믿음의 큰 그림이고 중요한 포인트이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복음에 결론이 나와 한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싫다해도 복음이 결론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 4절부터 말하는데 가장 먼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서 미혹한다고 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보다 조금 못하면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다른 선지자가 필요없다. 성경만한 선지자, 예수님만한 선지자가 있는데 무슨 선지자가 더 필요한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일어서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것이라고 했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마태복음 24:10-12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다. 불법은 자기 맘대로 한다는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은 남의 것 뺏어버리고, 권력가진 사람은 권력을 휘두른다.

마태복음 24:21-22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한번도 보지 못한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 그정도로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실것이라고 하셨다.

참 감사하다.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구원 받은 사람이 기준이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23-24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 큰 기적 이적에 속으면 안된다. 믿음 하나로 끝이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 하나이다. 기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마태복음 24:27-9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 오실때에는 세상 사람이 확실히 보도록 오시는 것이다.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다.

마태복음 24: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소리와 함께 구원의 일을 천사들이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짜 모른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4장에는 이것 외에도 내용이 많이 있다. 심지어 중요한 포인트만 뽑았는데도 내용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스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끝인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관계 없다. 믿음 하나로 끝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이 믿음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다. 놀라우면서 간단하다. 그래서 복음이 결론이다. 복음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그리스도라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든지 아니든지 상관 없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있는 것은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그리스도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 상관 없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갈 필요 없다. 그 사람을 보게 구원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믿는게 구원이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굳이 갈 필요 없고 믿음으로 끝난다. 그리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해도 거기 가야 구원 받는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고 했다. 그러니 갈 필요 없다. 주님도 그렇다. 자기가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오는것보다 믿는 것을 원하셨다. 믿음 하나로 끝이다. 간단하지만 믿음이란것을 알보면 안 된다. 이건 대단한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안되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믿음 안 생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으로 다 해결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아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 땅의 환난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당하는 것이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성경이 기록했느냐면 참고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24: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견뎌 나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견뎌야 하면

그것은 종교이다. 예수님은 종교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만약 나 스스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면 불교와 같다. 우리가 견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만일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절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에 실패하시나? 하나님이 사단에게 막혀서 구원 못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하나고 말하냐면 복음적 해석이 아니라 종교적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믿는 순간에 성령님 들어오시고 완성이다.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죄를 계속 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날을 감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꼭 견뎌야 한다면 견딜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휴거같은 단어가 있다. 공중으로 들려 올려간다는 것이다. 너는 너의 힘으로 날아오라고 한다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천사가 데려가야지 우리가 우리 발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단어에 잡혀 있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 이게 문제는 믿긴 믿는데 종교인 것이 문제이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내야 한다. 믿음 하나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은 출발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그런데 노력도 좀 해야 된다. 견디기도 해야 되고, 날짜도 알아야 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사이비단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옛날에 한국에 그런 단체가 있었다. 그 날이 왔다고 하고 전부 모여서 흰옷으로 갈아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었다.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입히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흰옷을 입고 천국에 갈수 있는가? 산위에는 왜 가는가? 천사가 못 내려 올까봐 올라가는가? 웃기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사람 수준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알 필요가 없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실 것이니까 그 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괜히 날짜 연구하고 그럴필요 없다. 거거 알아서 뭐하려고 하나? 맞춘 사람도 없지만,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것인가? 알 필요가 없다. 그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누구든지 다 알수 있는 식으로 오는데 연구할 필요 없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날전에 죽으면 천국가고 그날이 오면 그날 천국가면 된다. 그리고 그 날이 와도 우왕좌왕 할필요 없고 그냥 집에 앉아서 기도하면 된다. 천사가 데려가야지,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앉아 있으면 된다.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쓸데없는것만 말한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재앙을 해결할 것은 믿음 하나이다.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42: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을 보면 뭔가 날짜를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날짜를 알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느낌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해석이다. 왜냐하면 날짜는 몰라도 된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믿음으로 안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날짜도 알아야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곳은 한 군데도 없다. 요한

복음 5:24절에 구원에 대해 중요한 구절인데 믿음은 구원을 받고 지금 구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만일 날짜 중요하다면 여기에도 그리고 날짜도 알아야 된다고 썼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는 날짜를 알아야 한다? 절대 아니다. 믿어서 구원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은 왜 써있는가? 예수님 오시면 구원의 문 닫혀 버린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깨어서 정신차리고 믿으라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 하나로 끝이다. 그런데 날짜를 알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 그것은 구원과 상관 없다. 그런 식으로 깨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가 포인트이다. 주님 오면 끝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 믿고 깨어 있으라, 정신차리라는 그런 의미이다. 너는 깨어 있어서 그 날짜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마지막때 이런 일 있으니까 너 구원받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깨어 있어도 구원과 상관 없으면 뭐하러 깨어 있는가? 그러므로 이 깨어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한다.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빨리 믿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문 닫혀 버리고 절대 다시 열리지 않는다. 다음 다음주에는 마태복음 25장 할텐데 열쳐녀 비유 나온다. 거기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에게 문이 닫히고 나서 절대 열리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때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결론은 이 모든 것은 믿음 하나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축복 있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론이고 복음이 결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마태복음 24: 45-47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 복음이다. 그리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넘어가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영적 양식을 나눠줄 사람.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 저주에서 구원되는 길은 오직 복음 뿐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리고 죽으신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왜냐하면 오직 죄 사함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에서 건져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 사실은 세상은 이간단한 복음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다. 우리는 이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참 많다. 계획도 많고 미래에 대한 것 많이 있다.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만일 내일이 지구의 마지막날이라면 아마 우리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다. 이런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종류는 상관 없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팀장들은 팀의 전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포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교구 담당교역자들, 구역장들과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믿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들은 사실 무시해도 된다. 믿음 하나로 끝이고 복음 전하는 인생 살면 된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